

[인문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인문대학 학생회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 학우 여러분. 제40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수연, 부학생회장 임윤규입니다.

최근 발생한 인문대학 특별감사 결과 및 특정 학과의 개강총회비 운용 논란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우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입장을 밝힙니다.

1. 2026년도 인문대학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관련자 사퇴에 관한 건

지난 4월 15일, 감사위원회는 인문대학 소속 단위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인문대학 학생회의 학생회비·자금 집행 내역이 아니라 인문대학 소속 학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였으나, 개강총회 집행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에서 비롯된 사안인 만큼 그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생회는 해당 학과를 비롯한 각 단위 대표자에게 성실하고 진솔한 태도로 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6월 19일, 감사위원회는 사학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공금과 사비의 혼용, 관련 증빙자료의 부재, 일부 인원의 개강총회비 미납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신임 결의 요청’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불신임 공고가 공식 발효되기 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단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연루된 두 학우는 사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단인 동시에, 각각 본 인문대학 학생회의 국장과 국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두 학우가 본 학생회의 일원인 만큼, 본 학생회 역시 이번 사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회장단의 논의 끝에, 두 학우가 본인의 과오에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학생회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 사학과 개강총회비 미환불 및 사비 운용 논란에 대하여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강총회비 집행 구조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각 학과의 개강총회는 학과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적으로 각 학과 학생회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그 회계 역시 학과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상 본 학생회는 사학과 개강총회비의 구체적인 수납 규모나 집행·환불 내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집행 구조에 대한 설명일 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루된 두 학우가 본 학생회의 일원인 만큼 본 학생회가 이 사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 공고를 통해 미환불 사안을 인지한 즉시, 본 학생회는 학과 측에 개강총회 참여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환불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

였습니다.

특히 특정 지인들에게 개강총회비를 면제해 주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 자치의 근간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학생회 또한 그 전말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에 깊은 유감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학우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 이러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결여 및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인문대학과 각 단위의 개강총회 및 학생회비 외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타 행사의 예산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질적인 집행 내역과 사후 정산 결과까지 검증·보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검증은 정기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학우 여러분이 관련 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6년 6월 22일

제40대 인문대학 학생회 ‘오늘’ 회장단 배상